

국어 언어(문법) 체계표 P.10

PART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 백과사전식 언어(문법)
 - 음운 P.14
 - 음운의 변동 P.22
 - I. 교체 P.23
 - II. 탈락 P.32
 - III. 첨가 P.36
 - IV. 축약 P.38
 - V. 기타 P.39
 - 국어의 규범 더 보기 P.44
- 기출 문제로 훑로서기 P.49

PART 2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문장

- 백과사전식 언어(문법)
 - 형태소 P.60
 - 단어 P.62
 - I. 품사 P.65
 - II. 단어의 형성 P.83
 - 문장 P.91
 - I. 문장 성분 P.93
 - II. 문장의 구조 P.98
- 기출 문제로 훑로서기 P.102

PART 3 문법 요소

- 백과사전식 언어(문법)
 - 종결 표현 P.112
 - 높임 표현 P.116
 - 시간 표현 P.120
 - 피동 표현 P.126
 - 사동 표현 P.130
 - 부정 표현 P.134
- 기출 문제로 훑로서기 P.138

CONTENTS

PART 4 의미 관계와 중의성

- 백과사전식 언어(문법)
 - 단어의 의미 관계 P.148
 - 관용 표현 P.153
 - 의미 변화의 유형 P.153
 - 중의적 표현 P.154
 - 정확하지 못한 문장 P.156
- 기출 문제로 홀로서기 P.158

PART 5 국어의 역사

- 백과사전식 언어(문법)
 - 훈민정음 P.168
 - 국어의 역사 P.172
 - I. 고대 국어 P.172
 - II. 중세 국어 P.173
 - III. 근대 국어 P.184
- 기출 문제로 홀로서기 P.188

언어(문법) 공부 방법에 대한 백문일답 P.194

정답과 해설 P.198

PART I 음운과 음운의 변동

· 음운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최소 대립쌍	P.14
· 자음	조음	P.15
	조음 위치	P.15
	조음 방법	P.15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P.16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비음, 유음	P.16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	P.16
· 모음	단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P.18
	반모음, 이중 모음, ㅟ계 이중 모음, ㅞ/ㅟ계 이중 모음	P.18
· 음절	초성, 중성, 종성, 음절의 구조	P.20
· 음운의 변동	교체	P.23
	탈락	P.32
	첨가	P.36
	축약	P.38
	사잇소리 현상	P.39
	모음 축약(반모음화)	P.43
· 국어 규범	한글 맞춤법	P.44
	로마자 표기법	P.47
	외래어 표기법	P.48

백문일답 찾아보기

최소 대립쌍	P.14	01 문
장단	P.15	02 문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용어	P.16	03 문
이중 모음의 발음	P.20	04 문
음절	P.21	05 문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	P.21	06 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현상	P.24	07 문
비음 동화와 'ㄹ'의 비음화	P.26	08 문
된소리되기	P.27	09 문
구개음화	P.30	10 문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P.33	11 문
'ㅎ' 탈락	P.35	12 문
'불여우'의 음운 변동 현상	P.36	13 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	P.38	14 문
사잇소리 현상	P.39	15 문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P.42	16 문
반모음과 이중 모음	P.43	17 문
한글 맞춤법 제1항	P.44	18 문
외래어 표기법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	P.48	19 문
음운 변동 현상과 국어 규범	P.48	20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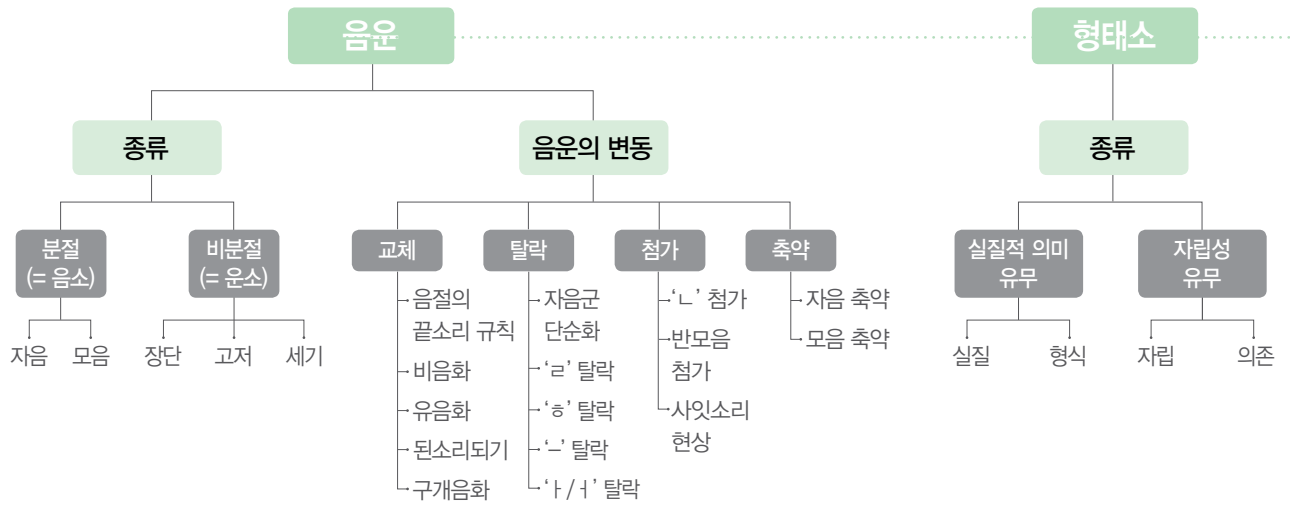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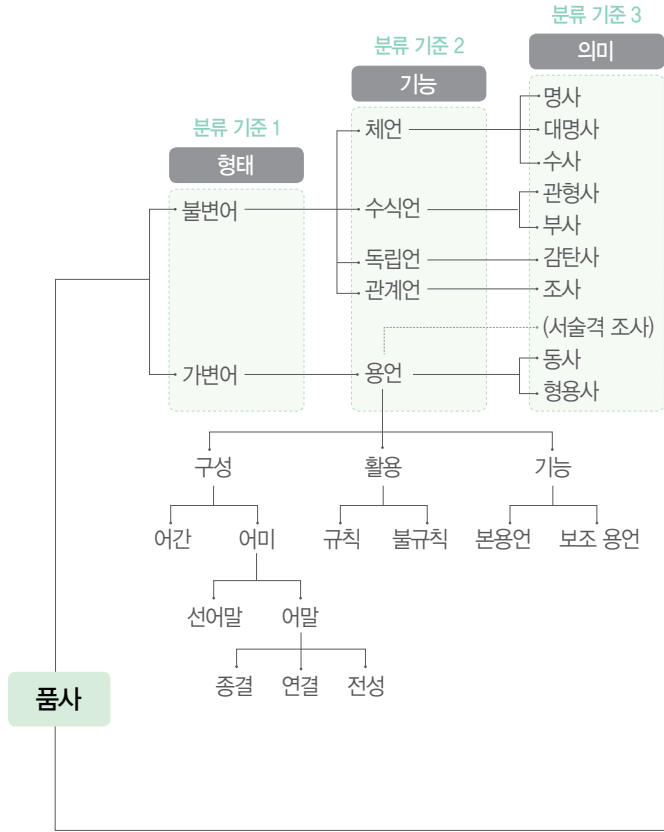
PART 2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문장

•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형태, 기본형	P.60
• 단어	품사, 품사의 분류 기준	P.62
•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 접사, 직접 구성 요소	P.63
• 품사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용언,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P.65 P.69 P.73 P.73 P.78 P.82
• 단어의 형성	파생어 '-(으)ㄴ'의 변화 과정 합성어	P.83 P.85 P.88
• 문장 성분	주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속 성분(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독립어)	P.93 P.96 P.97
• 문장의 구조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이어진문장	P.98 P.100

백문일답 찾아보기

형태소의 기본형	P.61	21 문
음운과 형태소	P.61	22 문
직접 구성 요소 분석	P.63	23 문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P.64	24 문
의존 명사와 의존 형태소	P.66	25 문
접미사, 의존 명사, 보조사	P.67	26 문
대명사 '누구'	P.68	27 문
재귀칭	P.69	28 문
품사와 문장 성분	P.70	29 문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의 활용형 '다른'	P.71	30 문
지시 관형사 '이/그/저'와 지시 대명사 '이/그/저'	P.71	31 문
부사의 특징	P.72	32 문
주의해야 할 조사	P.73	33 문
접속 조사 '와/과'와 부사격 조사 '와/과'	P.75	34 문
격 조사와 다른 보조사의 특징	P.76	35 문
주어 자리에 쓰이는 보조사 '은/는'	P.76	36 문
'있다', '없다'의 품사	P.78	37 문
'르' 불규칙 활용과 '러' 불규칙 활용의 구분	P.81	38 문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 '-기'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 '-기'	P.85	39 문
접미사와 어미의 비교	P.86	40 문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방법	P.89	41 문
문장의 문법 단위	P.91	42 문
주어가 두 개인 문장	P.93	43 문
관형어로 쓰이는 체언	P.96	44 문
필수적 부사어	P.97	45 문
부사 '없이'	P.99	46 문
주의해야 할 어미	P.101	47 문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문장 공부 방법	P.101	48 문

◇ 국어 언어(문법) 체계표



단어의 형성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파생어

- 어근
- 접사
 - 접두사
 - 접미사

단어

문장 성분

구, 절

문장

종류

주성분

-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부속 성분

- 관형어
- 부사어

독립 성분

- 독립어

구

- 명사구
- 관형구
- 부사구
- 동사구
- 형용사구

절

- 명사절
- 관형절
- 부사절
- 서술절
- 인용절

홀문장

겹문장

이어진문장

안긴문장 (안은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

구조

종류

- 평서문
- 명령문
- 청유문
- 감탄문
- 의문문

잠깐!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 '언어(문법)' 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첫째 '오- + -아 → 와[와]'는 축약인가? 교체인가?

동사 '오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해 '와[와]'로 발음하는 것은 음운 변동 중 축약의 예에 해당할까? 교체의 예에 해당할까? 이를 축약으로 보는 관점은 두 개의 단모음 'o'와 'a'가 한 개의 이중 모음 'oa'로 줄었다는 것에 주목하는 입장이고, 교체로 보는 관점은 이중 모음 'oa'가 하나의 음운이 아니라, 반모음 'w'와 단모음 'a'가 결합한 두 개의 음운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후자의 관점은 어간의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평가원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했을까?

평가원 밑줄 2015학년도 ⑤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됨 **예** '배우- + -어 → [배워]'

2015학년도 수능A에서는 '모음 축약'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된다고 표현함으로써 '축약'의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을 2021학년도 4월 모평에서는 '교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평가원 밑줄 2021학년도 ⑥ 음운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 **예** '오- + -아 → [와]'

즉, 2021학년도 평가원에서는 이 현상을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바뀌었다고 보는 '교체'의 관점을 반영하여 출제한 것이다. 한편 최근 EBS 연계 교재에서도 이를 '교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오- + -아 → 와[와]'를 교체로 보는 관점이 우세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은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보기>나 지문에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제시할 수도 있고 한쪽 관점만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7 문(0.43)을 참고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두자.

둘째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면, 이중 모음을 가진 단어들의 '최소 대립쌍'도 달라질까?

평가원 밑줄 2019학년도 ⑤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예** '살 - 쌀', '쉬리 - 소리'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최소 대립쌍 문제가 등장했다. 최소 대립쌍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들었는데, 그중 '살 - 쌀'은 초성의 자음만 서로 다른 경우이고, '쉬리 - 소리'는 중성의 단모음만 서로 다른 경우로 각각의 최소 대립쌍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된다. 참고로 '뜻을 구별해 주는 하나의 소리'에는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 외에도 장단과 같은 비분절 음운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11 문(0.14)을 참고해서 공부해 두자.

최소 대립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최소 대립쌍을 이루려면 단 하나의 소리만 차이가 나야 하므로, 짝을 이루는 단어들은 음절의 구조와 음운의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관점에서 중성이 이중 모음인 단어들의 경우 최소 대립쌍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를 들어 중성이 반모음 'j'와 단모음 'i'로 이루어진 '명'과 중성이 반모음 'j'와 단모음 't'로 이루어진 '왕'은 음절의 구조와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면서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성이 반모음 'j'와 단모음 'i'로 이루어진 '명'과 중성이 반모음 'w'와 단모음 't'로 이루어진 '왕'은 음절의 구조와 음운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각각 반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달라 두 개의 소리가 차이 나므로 최소 대립쌍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는 2015 교육과정의 반영된 것으로, 탐구형 문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탐구형 문제는 주어진 관점과 설명에 따라 문법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책의 시작 부분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경우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문법 현상도 다르게 설명될 수 있음을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차근차근 다양한 문법 현상을 탐구해 나가면서 수능 국어 언어(문법)를 완벽하게 정복해 보자.

“

PART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

🔍 문법 체계 한눈에 보기

- 음운 |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최소 대립쌍
- 자음 | 조음,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비음, 유음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
- 모음 | 단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이중 모음, 반모음, ㅟ 계 이중 모음, ㅞ/ㅟ 계 이중 모음
- 음절 | 초성, 중성, 종성, 음절의 구조
- 음운의 변동 | **참고** 음운 변동 현상을 살펴볼 때 ① 위치 확인하기 ② 주변 환경 확인하기
 -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ㅣ' 모음 역행 동화, 조음 위치 동화
 - 탈락 |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ㄷ' 탈락, 'ㅌ/ㅎ' 탈락
 - 첨가 | 'ㄴ' 첨가, 반모음 첨가
 - 축약 | 거센소리되기
 - 기타 | 사잇소리 현상, 반모음화, 동화, 연음
- 국어의 규범 |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음운에 대하여
소리 내봐 ㄱ, ㄴ, ㄷ, ㄹ... ㅏ, ㅑ, ㅓ, ㅕ...

음운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분절 음운(음소): **나눌 수 있는** 음운으로 **자음과 모음**을 가리킴

비분절 음운(운소): **나눌 수 없는** 음운으로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 등을 가리킴

최소 대립쌍: 단 하나의 음운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단어쌍

평가원 밑줄 **2019학년도 5**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예** '살 - 쌀', '쉬리 - 소리', '마루 - 머루', '구실 - 구슬'

이 문 1 최소 대립쌍을 통해 음운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일 답 1

불 vs. 물 - 'ㅃ'과 'ㅄ'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ㅃ'과 'ㅄ'은 각각 하나의 음운

불 vs. 발 - 'ㄱ'과 'ㅏ'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ㄱ'과 'ㅏ'는 각각 하나의 음운

불 vs. 북 - 'ㄹ'과 'ㄱ'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ㄹ'과 'ㄱ'은 각각 하나의 음운

최소 대립쌍

어떤 단어쌍이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된다면 그 단어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해. 이렇게 최소 대립쌍이 성립되면 차이가 나는 각각의 소리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돼. 예를 들어 '동'과 '똥'은 자음 'ㄷ'과 'ㅌ'의 차이로 인해 뜻이 구별되지? 그래서 'ㄷ'과 'ㅌ'은 각각의 음운이고, '동'과 '똥'은 최소 대립쌍이야~ 그리고 'ㄱ, ㄷ, ㅃ, ㅕ, ㅗ, ㅛ'도 하나의 음운이라는 것 기억하자! 이렇게 최소 대립쌍을 활용하면 자음과 모음 같은 분절 음운을 추출할 수 있는데, 분절 음운뿐만 아니라 소리의 장단과 같은 비분절 음운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도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해.

02 문 1 길게 발음하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짧게 발음하는 ‘눈’은 신체의 일부인 눈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분절 음운인 장단으로 뜻을 구별하는 단어들을 모두 외워야 하나요?

일 답 1

눈보라가 치더니 함박눈이 와. 어머 저 강아지 꼬리 감기는 것 좀 봐.

[표준 발음법: 음의 길이]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처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밤나무[밤:나무]
 천눈[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바:니/반:신바:니] 재삼재사[재:삼재:사] 선남선녀[선:남선:녀]

[붙임] 용언의 다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봐:] 기어 → 겨[겨:] 두어 → 뒤[뒤:]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찌,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다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신다[신:따]-신어[시:너] 알다[알:다]-알아[아:라]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밟:따]-밟히다[밟:피다]

음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자료가 제시될 거야. 원칙은 단어의 처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난다는 것! 나머지는 제시된 자료를 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눈보라가 치더니 함박눈이 와. 어머 저 강아지 꼬리 감기는 것 좀 봐.’에서 긴소리로 나는 것만 찾아보자!
 눈보라[눈:보라], 봐[봐:]

자음, 어디까지 아니?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알면 음운 변동 현상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음

조음: 말소리를 낼 때 관여하는 발음 기관인 성대, 목젖, 혀, 이, 입술 따위를 움직이는 것

조음 위치: 말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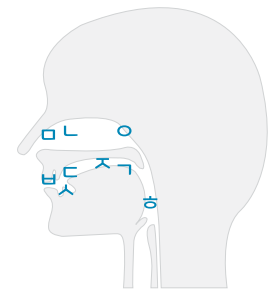
양순음: 두 입술을 맞대고 나는 소리 (ㅂ, ㅃ, ㅍ, ㅁ)

치조음: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ㄷ, ㄸ, ㅌ, ㅊ, ㅎ, ㄹ)

경구개음: 혀의 앞부분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ㅉ, ㅊ)

연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ㄱ, ㅋ, ㆁ)

후음: 목젖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ㅇ)



참고 치아 뒤에서부터 혀로 입천장을 건드려보면 앞쪽은 딱딱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데, 딱딱한 부분이 경구개(센입천장), 부드러운 부분이 연구개(여린입천장)이다.

조음 방법: 말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이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

파열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ㅂ, ㅃ, ㅍ, ㅌ, ㅍ, ㅎ, ㅑ, ㅓ, ㅕ)

파찰음: 일단 **파열**시켰다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ㅈ, ㅉ, ㅊ)

마찰음: 입 안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ㅅ, ㅆ, ㅎ)

참고 파열음, 파찰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고, 마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로 나뉜다.

예사소리(평음):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발음 (ㅂ, ㄷ, ㄱ, ㅅ, ㅈ)
 된소리(경음): 긴장도가 높아 강하게 발음 (ㅃ, ㄸ, ㄲ, ㅆ, ㅊ)
 거센소리(격음): 숨이 거세게 나오면서 발음 (ㅍ, ㅌ, ㅋ, ㅊ)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ㅁ, ㄴ, ㅇ)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ㄹ)

참고 'ㄴ, ㄹ, ㅁ, ㅇ'을 제외한 자음은 모두 안울림소리, 'ㄴ, ㄹ, ㅁ, ㅇ'과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안울림소리: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울림소리: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는 소리 (비음, 유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무성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유성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참고 'ㅎ'은 음운 체계에서 예사소리로 보는 견해와 거센소리로 보는 견해, 혹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03 문 |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양순음, 치조음 ... 이런 용어들을 모두 암기해야 하나요?

일 답 |

밤 단 강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와 관련된 용어들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각 자음이 갖고 있는 속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돼. 아참! '밤단강'이 뭐냐고? 암기하기 쉽게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자음들끼리 묶어 본 거야! 양순음부터 후음까지 위치한 자음들 중 기본적인 자음들 'ㅂ(양순음), ㄷ/ㅌ(치조음), ㅈ(경구개음), ㄱ/ㅇ(연구개음), ㅎ(후음)'을 먼저 기억해 두면 나머지 거센소리와 된소리는 저절로 외워지겠지? 그리고 'ㅂ'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지우면 'ㅁ'이 되니까 'ㅁ'은 'ㅂ'과 같은 위치, 'ㄷ'에서 획 하나를 지우면 'ㄴ'이, 획을 두 개 더 그으면 'ㄹ'이 되니까 'ㄴ, ㄹ'은 'ㄷ'과 같은 위치! 일단 이렇게 외워두자!

국어사적 관점으로 '자음' 한눈에 보기

1. 중세 국어의 자음

초성:	예사소리	ㅂ, ㄷ, ㄱ, ㅈ, ㅅ, ㅎ
	된소리	ㅃ, ㄸ, ㅉ, ㅆ
	거센소리	ㅍ, ㅌ, ㅋ, ㅊ
	유성 마찰음	ㅁ, ㄴ, ㅇ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참고 중세 국어의 어두에서는 'ㅂㄷ, ㅃ, ㅆ' 등과 같은 자음군이 쓰일 수 있었다.

중성 표기 8중성법: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옛이음
 ↳ 발음 구별

평가원 밑줄 2017학년도 ⑥ (15세기 중세 국어) 당시에는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다.

2014학년도 ⑤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자음 'ㄷ'과 'ㅅ'이 존재하였다.

- 초성에 오는 'ㅂㄷ'은 'ㅂ'과 'ㄷ'이, 'ㅃ'은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2. 근대 국어의 자음

초성:	예사소리	ㅂ, ㄷ, ㄱ, ㅈ, ㅅ, ㅎ
	된소리	ㅃ, ㄸ, ㅉ, ㅆ, ㅆ(ㅃ)
	거센소리	ㅍ, ㅌ, ㅋ,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중성 표기 7중성법: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ㅇ(옛이음)이 현대 국어의 'ㅇ' 자로 바뀜
 ↳ 표기는 'ㅅ'으로 적으나, [ㄷ]으로 발음

평가원 밑줄 2019학년도 ⑤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2017학년도 ⑥ 'ㅁ', 'ㄷ'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3. 현대 국어의 자음

초성:	예사소리	ㅂ, ㄷ, ㄱ, ㅈ, ㅅ, ㅎ
	된소리	ㅃ, ㄸ, ㅉ, ㅆ, ㅆ
	거센소리	ㅍ, ㅌ, ㅋ,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중성:	받침 표기	겹받침 포함 자음 27자 ('ㅃ, ㅆ, ㅆ' 제외)
	받침 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만 발음

참고 외래어 표기법: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적용

↳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에서 [ㄷ] 발음을 'ㅅ'으로 표기함 (P.48 '19문' 참고)

예 robot: 로봇 (발음은 [로봍])

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ㅌ	ㄴ	ㅁ	ㅇ	ㅈ	ㅊ	ㅌ	ㅎ
표기	모음 앞	g	d	b	tt	n	m	ng	j	ch	t	h
	그 외	k	t	p								

모음	ㅏ	ㅑ	ㅓ	ㅕ
표기	a	ae	o	i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지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 ①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찌]’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달아[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밤물[밤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기출 문제로 홀로서기
정답과 해설

”

PART I. 음운과 음운의 변동

문제 P.49

정답	01	③	02	①	03	①	04	①	05	②
	06	①	07	⑤	08	⑤	09	⑤	10	①
	11	④	12	①						

01 ③

정답풀이

〈보기〉에서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라고 했으므로, [A]에서 단 하나의 소리만 차이가 나는 것끼리 짝을 지어 보면 ‘쉬리-소리’, ‘마루-머루’, ‘구실-구술’의 세 개의 최소대립쌍을 찾을 수 있다. 각 최소대립쌍에서 서로 다른 하나의 소리만 추출하면 ‘ㄱ, ㄴ, ㅌ, ㄷ, ㅌ, ㅌ’이므로, 이 중 평순 모음은 ‘ㄷ, ㅌ, ㅌ’로 모두 4개이다.

오답풀이

- ① 추출된 음운에서 전설 모음은 ‘ㄷ, ㄱ’로 모두 2개이다.
- ② 추출된 음운에서 중모음은 ‘ㄷ, ㄴ’로 모두 2개이다.
- ④ 추출된 음운에서 고모음은 ‘ㄷ, ㄱ, ㅌ’로 모두 3개이다.
- ⑤ 추출된 음운에서 후설 모음은 ‘ㅌ, ㄷ, ㅌ, ㄴ’로 모두 4개이다.

02 ①

정답풀이

㉠의 ‘갈이’는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ㄷ, ㅌ’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가치]로 발음되며, 로마자 표기에도 이를 반영하여 ‘gachi’로 적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땀받이’도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땀바지]로 발음되고, 이를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하여 ‘ttambaji’로 적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의 ‘잡다’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잡따]로 발음되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는 ‘japda’로,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삭제’도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삭제]로 발음되지만, 로마자 표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의 ‘놓지’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노치]로 발음되며, 로마자 표기에도 이를 반영하여 ‘nochí’로 적었다. 이와 달리 ‘닿아’는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인 ‘ㅎ’ 탈락이 적용되어 [다라]로 발음되며,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④ ㉣의 ‘맨입’은 ‘ㄴ’ 첨가가 적용되어 [맨닙]으로 발음되며, 로마자 표기에도 이를 반영하여 ‘maennip’으로 적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여름’도 ‘ㄴ’ 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되고, 이를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의 ‘백미’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뱅미]로 발음되며, 로마자 표기에도 이를 반영하여 ‘baengmi’로 적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밥물’도 비음화가 일어나 [밤물]로 발음되고, 이를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3 ①

정답풀이

㉠의 ‘도매가격’은 ㉠, ㉡,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도매값’은 ㉠, ㉡, ㉢, ㉣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따라서 두 단어는 조건 ㉠이 아닌 ㉡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의 ‘전세방’은 ㉠, ㉡,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아랫방’은 ㉠, ㉡, ㉢, ㉣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따라서 두 단어는 조건 ㉡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에 해당한다.

③ ㉢의 ‘버섯국’은 ㉠, ㉡,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조갯국’은 ㉠, ㉡, ㉢, ㉣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따라서 두 단어는 조건 ㉡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에 해당한다.

④ ㉣의 ‘인사말’은 ㉠, ㉡,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존댓말’은 ㉠, ㉡, ㉢, ㉣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따라서 두 단어는 조건 ㉡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에 해당한다.

⑤ ㉣의 ‘나무껍질’은 ㉠, ㉡,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나뭇가지’는 ㉠, ㉡, ㉢, ㉣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따라서 두 단어는 조건 ㉡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에 해당한다.

04 ①

정답풀이

㉠에서 '글는'의 비표준 발음은 자음군 단순화의 영향으로 겹받침 'ㄹ'에서 'ㄱ'이 탈락하여 '글는'으로 바뀐 뒤 유음화의 영향으로 [글른]으로 발음된 것이다. 반면 '글는'의 표준 발음은 자음군 단순화의 영향으로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여 '극는'으로 바뀐 뒤, 비음화의 영향으로 [극는]으로 발음된 것이다.

㉡에서 '짹네'의 비표준 발음은 자음군 단순화의 영향으로 겹받침 'ㅈ'에서 'ㄹ'이 탈락하여 '짹네'로 바뀐 뒤 비음화의 영향으로 [짹네]로 발음된 것이다. 반면 '짹네'의 표준 발음은 자음군 단순화의 영향으로 겹받침 'ㅈ'에서 'ㅂ'이 탈락하여 '짹네'로 바뀐 뒤 유음화의 영향으로 [짹네]로 발음된 것이다.

㉢에서 '끈기고'의 표준 발음은 거센소리되기의 영향으로 겹받침 'ㄹ' 중 뒤의 자음인 'ㅎ'이 'ㄱ'과 축약되어 [끈기고]로 발음된 것이다.

㉣에서 '뚫지'의 표준 발음은 거센소리되기의 영향으로 겹받침 'ㅈ' 중 뒤의 자음인 'ㅎ'이 'ㄷ'과 축약되어 [뚫지]로 발음된 것이다.

05 ②

정답풀이

㉠과 ㉣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났지만, ㉡은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유음화(교체)만 일어났을 뿐, 첨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이다.

오답풀이

- ① ㉠은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났으므로 3회, ㉡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 ㉢은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났으므로 각각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③ ㉠에서 '흙일'의 음운은 6개이고, 발음인 [흙닐] 역시 6개이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에서 '달는'의 음운은 7개인데 발음인 [달른]의 음운은 6개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에서 '발아구'의 음운은 6개인데 발음인 [발랴구]의 음운은 7개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 ④ ㉡은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고, ㉢은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다.
- ⑤ ㉢과 ㉠에는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났다.

06 ①

정답풀이

'흙하고[흐카고]'는 '흙하고 → 흑하고(자음군 단순화) → 흐카고(자음 축약)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므로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8개에서 6개로 줄었다.

오답풀이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저녁연기 → 저녕년기('ㄴ' 첨가) → 저녕년기(비음화)로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9개에서 10개로 1개 늘었다. 참고로 음운의 개수를 셀 때에는 음절 초성의 'ㅇ'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부엌문[부엌문]'은 '부엌문 → 부엌문(음절의 끝소리 규칙) → 부엌문(비음화)', '북는[봉는]'은 '북는 → 북는(음절의 끝소리 규칙) → 봉는(비음화)과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므로, 모두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음운의 개수는 동일하다.
- ④ '엷지[언찌]'는 '엷지 → 언ㄷ찌(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 언찌(자음군 단순화)', '뭉고[물꼬]'는 '뭉고 → 물ㄱ꼬(된소리되기) → 물꼬(자음군 단순화)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므로, 교체와 탈락이 일어났다. 즉, '엷지[언찌]와 '뭉고[물꼬]'에는 축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음운의 개수는 모두 1개씩 줄었다.
- ⑤ '넙네[넙네]'는 '넙네 → 넙네(자음군 단순화) → 넙네(유음화)', '밖는[방는]'은 '밖는 → 밖는(자음군 단순화) → 방는(비음화)과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므로,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1개씩 줄었다.

07 ⑤

정답풀이

'옹고'는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옹고'가 되고 (나)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옹고'가 된다. 그리고 'ㅂ' 뒤에서 'ㄱ'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최종적인 발음은 [옹꼬]가 된다. 따라서 '옹고[옹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오답풀이

- ① '꽃힌'은 '꽃'의 받침 'ㅈ'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꼬친]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꽃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없다. 만약 '꽃'의 'ㅈ'에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본다면 '꽃힌'은 '꼇힌'이 되고 'ㄷ'과 'ㅎ'이 축약되어 '꼬틴'인 된 다음, 구개음화가 일어나 [꼬친]으로 발음된다고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받침이 'ㄷ, ㅌ(ㅈ)'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교육과정 평가원의 입장에서도 '꽃힌[꼬친]'의 경우를 축약으로 보고 있다.